KIDS GOD WORSHIP
www.kidworship.kr

요나

-열네 번째 이야기-

108Page

나 레 이 션 옛날 이스라엘에 요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.
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지요.
어느 날, 하나님이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.

하 나 님 요나야, 너는 니느웨 성으로 가서 그 곳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
그만두라고 전해라.

나 레 이 션 니느웨는 매우 큰 도시였어요. 그곳은 힘이 세고 큰 부자 나라였어요.
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모두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
살았어요.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어요.

요 나 거기는 나쁜 사람들이 잔뜩 있는 도시인데..
뭐 그렇게 살다가 망해도 싼 놈들이지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
하나님이 알아서 벌 하실거야...

109Page

나 레 이 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,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
배를 탔어요. 순조롭게 항해하던 그 순간!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고
폭풍이 몰려왔어요!

사 람 들 으아아아! 으아악!! 사람 살려!!
신이 분노하신게 틀림 없어!! 대체 누가 신의 분노를 샀는지
알아봅시다! 그래요! 그럽시다!

나 레 이 션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이 폭풍이 일어났는지 제비를 뽑자고 했어요.
제비뽑기에 걸린 사람은 요나였어요.

요 나 이럴수가.. 사실은...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 폭풍을 보내신 겁니다.
저를 바다 속으로 던져 주십시오.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입니다.

110Page

나 레 이 션 사람들은 폭풍을 잠잠케 하기 위해 요나를 배 밖으로 던졌어요.
신기하게도 그 즉시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 졌어요.
바다 속으로 빠진 요나에게 갑자기 큰 물고기가 나타나 요나를 꿀꺽
삼켜 버렸어요. 이 물고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물고기였어요.
요나는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게 되었어요.

111Page

요 나 하나님,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, 저를 살려 주세요!

나 레 이 션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어 주셨어요. 사흘 후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내뱉었어요. 마침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되었어요. 요나는 처음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.

요 나 여러분, 사십 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성을 무너뜨릴 것이오.

나 레 이 션 요나는 온종일 걸으며 큰소리로 외쳤어요.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전하는 말을 듣고 두려웠어요. 그래서 사람들은 음식도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

사 람 들 하나님,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, 이 성을 멸망시키지 말아 주세요.

나 레 이 션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이 진심인 것을 보시고,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로 하셨어요.

그래서 니느웨 사람들과 니느웨 성은 멸망 당하지 않았답니다.